

아프리카 도시의 사회문화적 성격과 문제점

金 光 億*

<차례>

- | | |
|-----------------|------------------|
| I. 머리말 | IV. 도시 이주민의 경제생활 |
| II. 이주와 도시의 형성 | V. 종족과 사회계층 |
| III. 도시의 사회적 특성 | VI. 결 론 |

I. 머리말

아프리카의 도시에 관한 연구는 이 지역에 관한 사회학자나 도시인류학자의 주된 작업의 하나가 되어 왔다. 특히 도시성장의 사회적 및 역사적 배경과 도시이주민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중남미의 도시문제와 함께 제3세계 도시연구 분야에 있어서 주된 관심거리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기왕의 연구는 특정지역에 대한 문제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자료에 있어서 미흡함과 부정 확성이 많음이 지적된다. 더욱이 본 연구는 직접경험을 통한 자료수집을 실시할 여건이 주어지지 않은 관계로 간접자료를 — 그 정당성과 정확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약성을 지닌다. 역설적이지만 결국 이 글은 기왕의 단편적인 자료와 해석들을 종합해봄으로써 아프리카의 제 도시들에 공통되는 성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아프리카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즉 문제지향적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이해에 연구의 의의와 초점을 맞추려 한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도시를 논함에는 무엇보다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흔히 도시인이란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지역적 기준을 적용하여 수량적인 측정을 한다. 그래서 가나(Ghana)의 1960년 센서스에서는 인구 5천 이상의 지역을 도시라고 규정하고 Bascom은 서나이지리아 지역에서는 도시에 대한 지수가 미국과 카나다의 중간에 위치함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정은 도시거주의 인구와 소위 농촌거

* 서울대 사회대 인류학과 조교수

주인구의 비율을 제시해 주지만 도시가 어떤 과정과 어떤 비율로 성장하는지에 관한 역동적인 측면을 알려주지는 못한다(Bascom 1955:446-54; Epstein 1967:270). 이러한 관점에서는 도시화라고 하는 것을 도시라고 하는 일정한 지역적 테두리 안에서 전체인구 가운데 어떤 숫자의 인구가 집중되는 과정으로 봄으로써 단순히 인구증가만 되면 곧 도시화가 진행될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물론 인구라는 요소가 도시화의 정의에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시생활의 사회적 또는 문화적 측면과 성격을 파악할 수는 없다. 즉 우리가 아프리카의 도시 및 도시화의 문제를 다룰 때 인구의 크기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인구의 구성 내용과 그들의 생활양상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합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Wirth(1938)의 정의에 가까운 도시화를 사회적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Mitchell은 도시로 이주하고 농업으로부터 도시 특유의 다른 비농업부문으로 직업을 바꾸며 그에 따른 독특한 행동양식을 가질 때 이를 도시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Breeze 1966:3, 재인용). 이런 때 우리는 도시의 공간적, 지역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Mitchell의 정의는 도시의 크기가 급격히 증대되어가는 데 대한 사회적 영향과 의미와,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은 구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아프리카의 도시를 해석하는 데에 아주 적절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도시의 주민이란 그 주거지역이나 주거기간이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이며 그 증가 역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이주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Ⅱ. 이주와 도시의 형성

아프리카의 도시들은 그 성립배경에 의하여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유럽 식민세력의 침투 이전부터 부족연맹체의 중심지나 토착왕국의 수도로서 자체발전한 것들이다. 나이지리아의 Kumasi처럼 이러한 도시는 코코아나 야자 등 국내 농산물의 집결지 혹은 국내 통신의 중심지가 되었다. 보다 급격한 성장을 보이면서 현대적 의미의 도시로 발전한 것들은 이와 대조적으로 식민통치기간에 형성되었다. 즉 서구의 산업화에 필요한

원료생산지 확보정책에 의하여 식민정부는 공장을 설립하고 원료의 집산과 운송을 위하여 철도를 부설하고 항구를 건설하였다. 이러한 지역은 자연히 자본주의 경제에 입각한 기업의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이 지역에는 또한 노동력이 필요하였으므로 식민정부는 농촌지역으로부터 값싼 노동인구를 이들 지역으로 집결시킴으로써 오늘날의 도시인구의 기반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룩된 도시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Ghana의 Accra, Freetown, Dakar, Niegria의 Lagos 등을 들 수 있으며 Enugu는 탄광지로서, Port Harcourt는 석탄수출항으로서 각각 건설될 도시였다.

일단 도시가 형성되면서 많은 인구가 농촌으로부터 이주해 오기 시작하였고 이는 아프리카 도시의 특성의 하나인 급격한 이주민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예를 들어 Lagos는 1930년에 126,000명이었지만 1964년에는 364,000명으로 늘어났고 4년후인 1968년에는 빼 20만 명이 되었다. Kenya의 수도인 Nairobi는 1940년에서 50년까지 10년간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였고 1950년에서 60년까지의 10년간에는 이것이 다시 두 배로 증가하였다. 도시의 급격한 인구성장을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들 중에서는 마찬가지로서 senegal의 수도는 1942년에서 52년까지 10년간 10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Ivory Coast의 수도는 이 시기에 10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Cameroon의 도시들은 1936년에서 1952년에 이르는 기간에 무려 250%의 인구 성장률은 보이기로 했다. 레오폴드빌(현재의 친샤사)은 1930년대에는 인구 3만 4천의 소도시였으나 20여년이 지난 1950년대에는 20만 8천의 인구를 가지게 되어 7배의 성장을 한 셈이다. 1963년 조사에 의하면 그 인구는 다시 빼 25만 명으로 팽창하였다.⁽¹⁾

이러한 급격한 도시에로의 이주는 현금경제(cash economy)의 도입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즉 현금수익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임금노동자가 되기 위하여 도시로 몰려오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아프리카의 도시에는 전가족 이주의 경우보다 가족 가운데 임금노동자로서 고용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이

(1) United Nations Demographic Yearbook Demographic Handbook for Afri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최근 인구에 대해서는 Hanna, William J. and Judith L. *Urban Dynamics in Black Africa Chicago*, (Aldine: 1971). pp. 13-19 참조요

잠정적으로 이주해 오는 이른바 부분이주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하여 노인과 어린 아이는 농촌에 머물고 젊은 남자, 과부와 같이 독립적인 여자나 소녀들, 젊은 부부들이 도시 산업부문으로 유입해 들어오고 있다.

이들이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도시이주를 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로, 그들 생활의 중요요소가 되면서도 농촌에서는 쉽게 확보되지 않는 것들을 도시에서는 쉽게 획득할 수 있다. 즉 의복, 담요, 가구, 자전거, 주방용기 등은 농촌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농촌에서는 그것을 구입할 만한 충분한 경제력이 쉽게 확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아주 자발적으로 도시로 나간다. 또한 전통적인 결혼비용에 충당할 돈을 벌기 위하여 미혼 남녀들이 도시로 나간다. 이들은 혼수감을 장만하거나 신부값(bride price)을 치를 충분한 현금을 모을 기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결혼 대상자를 만날 기회도 기대하는 것이다. 기혼여자들도 농업활동으로서는 연간 1~2회에 걸쳐서만 현금을 만질 수 있을 뿐임에 비하여 도시에서는 항상 현금을 만질 수 있다는 잇점에 의하여 도시로 나간다.

둘째로는,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나가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보다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교육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농업 이외의 직업 혹은 보다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중학교 이상의 직업교육기관은 소도시 이상에만 설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 자신의 친척이나 친지가 있는 도시에 보내서 위탁교육을 시키게 되고 이 자녀들은 졸업 후 도시에서 상인이나 회사원 및 공장기술자로서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부모는 농촌에 머물며 자식세대들은 중학교 교육수준에서부터 도시생활을 하게 된다(Balandier 1955:203-8; Littee 1965:20-3 등 참조).

셋째로, 경제의 다양화가 지적된다. 즉 농업의 상품화 및 코코아와 목화 재배 등 토착 농산물이 세계시장구조에 편입됨에 따른 환금작물의 확대는 토지에 화폐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부모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토지소유권을 양도하기를 거부하거나 양도시기를 늦춤으로 인하여 현금경제에 적절적인 접근수단을 갖지 못한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떠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도시

이주의 젊은 이들의 대다수가 무토지소유자들이고 그들의 반 이상이 농업외의 다른 부문으로부터 돈을 벌지 않는 한 토지를 구입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에서 잘 증명된다(Gulliver 1958:2).

넷째로, 도시로의 이주요인으로서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을 들 수 있다. 즉 보건과 위생시설의 개선과 자녀양육에 대한 조건향상의 결과 인구는 점차 증가한 반면 식량의 증산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잣은 한발이나 홍수로 인하여 기근상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기근상태는 농업기술의 개발이나 혁신없이 동일한 토지에 계속적인 재배를 행함으로써 토질의 황폐화로 인하여 더욱 촉진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농촌에서 더이상 토지에 생계를 의존할 수 없으므로 도시로 이주하게 된다. 이 경우 보편적인 이주 형태는 계절적 이동이다. 즉 기근이 들 때와 농한기인 6개월간의 건기에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서 임시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대개 11월에서 이듬해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16세에서 30세 전후의 청장년들은 이렇게 하여 도시로 떠나간다. 이들은 일정한 목적지가 없이 먼 길을 도보로나 트럭을 타고 아무곳으로나 떠난다. 도중에 날이 저물면 낯선 동네에서 쳐마밀이나 마을의 나무밑에서 잠을 잔다.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 안에서 지내야 하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에 대하여 마을주민이 갖는 불신감과 배타적인 태도로 인하여 집안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을에도 난사고가 발생하거나 갑자기 병이 나면 이를 낯선 사람들의 소행이거나 혹은 이들이 나쁜 주술을 행한 탓으로 의심을 받고 구타를 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들은 무슨 일이건 주어지는대로 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그리하여 여러 도시를 전전하면서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지 않는 단순비숙련 노동일에 종사한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양동이, 석유램프, 플라스틱 제품, 긴 옷, 무명셔츠와 바지, 여자머리를 장식하는 스카프, 거울, 샌들, 모기장, 식기, 벽이나 마루에 바를 시멘트 등을 자랑스럽게 한 집을 마련하여 온다. 이것은 고향에 남아 있던 식구와 이웃으로부터 성공적인 사례로 칭송과 부러움을 받으며 그들은 도시에서의 경험과 도시로 가는 도중에 겪었던 일들을 즐겁게 이야기 한다. 10대 청소년들의 도시진출의 경험은 또한 일종의 성인식의 의미가 있어서 새로운 경험, 보다 넓은 세계에 대한 지식, 도시인의 생활양식과 스타일, 얼마의 돈과 물건 등을 그에게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부여하는 기제가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에 대한 태도는 도시의 성격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한 도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로 온 이주자가 어느 정도로 자신이 그 도시의 일원이라고 스스로 여기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영국식민지였던 중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러한 관념은 매우 약한 것으로 보고된다. 즉 그들은 고향에 식구를 그대로 두고 온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자신은 여전히 고향의 일원이며 잠정적으로 독신자로서 도시에 와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시당국으로부터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내기를 거부하는 일이 흔하다(Van Velsen, 1961).

도시이주민의 소속감의 모호성은 남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된다. 즉 남아프리카에서는 금광과 탄광에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들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들에게는 부부나 식구가 모두 이주해 와서 살림을 하는 것을 일단 허락하지 않고 대신에 이들을 독신자로서 집단으로 거주케 하며 여러 작업조로 나누어 순번제로 휴가를 줌으로써 고향의 식구를 방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도시에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동시에 경제불황이 닥칠 경우 즉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난관을 수습하려는 의도에서 채택된 것이다.

벨기에령 콩고에서는 이에 비하여 하급사무직이나 하급제조업 및 비숙련 노동자들을 항구적인 도시계급으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즉 일단의 도시산업의 하부구조를 담당할 사람들에게 토지와 가옥을 제공함으로써 이주노동자가 아닌 정착노동자를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인구가 비교적 안정되고 고정되었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일정한 정책없이, 그리고 간접통치의 방법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부조직의 차원에서 아프리카인에 의해 자체 통제되도록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사이에 인구의 이동이 지극히 자유롭도록 방지하였다. 이는 도시에 대한 동경과 보다 나은 생활조건을 획득하려는 욕구에 의한 대량 인구의 급격하고 불규칙한 도시집중을 낳게 되었다. 나이지리아를 위시로 한 영국령 서아프리카 일대의 도시에서 흔히 거론되는 농촌출신 청소년의 도시집중과 일탈행위, 도시로 이주한 서로 다른 부족간의 알력과 갈등의 심각성 등은 이러한 정책부재에서 야기된 결과인 것

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개인적인 노동자로서 도시로 잠정적으로 이주하는 것이 전형적이며 전가족이 모두 도시로 이사를 가서 정착하는 것은 많지 않다. 임금노동자로서 도시생활의 경험을 갖는 것은 그들이 한번쯤 동경하는 일이지만 그들의 가슴속 깊이에는 전통적인 관념체계와 고향 및 친족에 대한 밀착된 감정이 자리잡고 있다(Little 1974:33). 남부 탄자니아의 Ngoni족은 자신의 영토나 일상생활의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평상시에도 자기의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마을의 바깥으로 나간다. Gulliver (1960:267)는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2,500개의 외지로의 여행사례 가운데 90%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에서 행해진 것이며, Schapera(1947)는 보츠와나에서 그의 조사 중 1.8%만이 경제적 요소가 아닌 다른 이유로 도시로 이주해 나갔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케냐의 Nyakusa족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그들은 대부분 자기집과 마을에 머물며 농촌생활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비록 현금회득을 위하여 Copper Belt지역으로 나가서 임금노동자가 되지만 가축을 매입할 만큼의 충분한 액수의 돈을 모으게 되면 다시 집을 짜들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들 냐쿠사족은 도시에서의 생활수준이 훨씬 높으며 원하기만 하면 열심히 일하여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원래의 농촌생활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Gulliver 1960:159-63).

이들에게 있어서 도시란 한편으로는 동경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사악한 곳이다. 도시에 나가서 그들은 건강을 해치고 사나운 인심과 각박하고 경쟁적인 이기심을 키워오며 혀영에 마음을 빼앗겨 전통적인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여긴다. 이러한 생각은 도시에 단독으로 임시 거주하는 사람이 고향에 남겨둔 식구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하여 식구뿐만 아니라 그 식구를 돌봐주는 친척과 이웃에게도 끊임없이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하는 심리적 및 경제적 부담에 의하여 더욱 강화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도시는 안정성이나 동질성에 관하여 아주 다양하다는 것과, 일괄적으로 도시의 성격을 규정짓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III. 도시의 사회적 특성

앞서 언급했듯이 아프리카의 도시는 크게 그 기원에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서구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생긴 토착적인 도시로서 이는 부족연맹체의 중심지이거나 왕국의 수도가 그것이다. 이들 도시는 대개 교역과 정치 및 종교적 중심지이며 주위는 농업지대가 대부분이다. 즉 사람들은 안전을 위하여 도시에 살면서 바깥의 농지로 가서 농업에 종사하고 생산물을 교역하기 위하여 도시에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도시생활양식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도시는 인구성장에 있어서도 완만한 모습을 보인다.

다른 한 유형의 도시로서는 서구식 민통치의 배경하에서 형성되었으며 인구의 급격한 팽창을 그 특징으로 함을 들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Zambia, Rhodesia(현 Zimbabwe), Kenya, Zaire 등의 대부분의 도시(대표적으로 Johannesburg, Copper Belt, Salisbury, Nairobi 등 수도)들이 이에 속한다. 반면 Tanzania, Uganda 그리고 프랑스령 적도지역의 도시들은 전자의 유형에 속한다(Southall, 1961:6-11). 이들 전자의 도시들은 그 기원이 오래되었다는 사실 외에도 많은 경우 東아프리카에 비하여 전통적인 측면을 훨씬 많이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Lagos와 Kaduna를 연결하는 국도상에 위치한 Oshogbo는 1880년에 세워진 도시로서 1965년 조사에 의하면 12만의 주민은 여전히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농토는 그 도시로부터 2마일에서 10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고 사람들은 이 농토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다. 도시로의 이주민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Oshogbo는 여전히 안정되고 동일적인 부족집단을 형성하며 동일한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있다(이 점에서 Wirth의 도시성에 대한 정의는 적용되지 못한다). 또한, 비록 친족관념이 새로운 이해관계나 가치관에 의해서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친족관계의 결속력은 여전히 파괴되지 않고 그들의 도시생활에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규범과 친족에 의해 규정된 관념에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관념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어떤 첨예한 사회적 계급제도가 형성되지는 않고 동질성을 지닌다(Schwab 1965:85-109).

이와 같은 모습들은 아프리카의 도시를 그 역사적 배경이나 인구성장률의

특성에 의하여 구분하기보다는 도시의 사회적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고 적합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Ghana의 Kumasi와 같은 도시는 수세기에 걸쳐서 존재해 온 오랜 도시이지만 그 역사적 사실보다는 그 도시가 상업과 통신의 중심지로서 활력에 넘쳐 있다는 점이 Kumasi를 이해하는 데에 더 중요한 것이다.

Oshogbo 역시 1952년에서 1962년에 걸쳐 그 인구가 대개 두 배로 증가했고 Accra 역시 그와 비슷한 인구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Oshogbo의 인구의 유입은 주로 원주민과 같은 Yomba족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에 비하여 Accra는 80여개의 상이한 부족 출신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만 1/2만이 원래부터 그 지역의 주민인 것이다. 더욱이 Kampala는 19세기 후반에 세워졌지만 거기에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 온 사람은 전체 인구의 20%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Gutkind 1962). 즉 주민의 이동성이 극도로 높은 것이다. 카탈라의 Mulago지구에 대한 집중 분석을 통하여 Gutkind는 4개월 동안에 그 지역의 Ganda족 주민의 10%가 떠났으며 17%가 새로 유입해 오고 8%가 두 번째로 또는 세 번째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주민의 11%는 Mulago 지구에 9개월~30개월의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들로서 Mulago에 이사해 온 이래 그 지역내에서 적어도 한 번은 이사를 한 경험이 있다. 6%는 두 번, 4%는 세 번 이상 이사경력을 가지고 있다. 같은 Mulago 지구내에서 이사를 한 사람 중 61%는 Ganda족 출신이 아니며(1957년 11월~1958년 3월에 걸친 조사기간에), 그 지구로의 유입은 31%(17%는 새로운 입주자이고 14%는 일단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인 반면 조사기간동안 면담대상자였던 사람의 12%만이 Mulago를 떠나갔다(Gutkind 1965:53).

따라서 현대 소도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주거의 불안정성 또는 주거기간의 지속성의 단절이다. 즉 대부분의 도시주민들은 잠정적인 거주자로서 보다 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거쳐가는 중간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프리카에서의 이주가 “계절적”이며 “순환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동시에 그때마다 반드시 전거주지로 되돌아와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 많은 새로운 도시나 도시의 새로 형성되는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대다수는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며 Southall이 강조하는 바의 “버섯처럼 번져나가는 인구성장”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Balandier의 연구(1955:148)에 의하면 Potopoto(브라자빌의 흑인도시 중의 하나)의 인구 중 그 도시에서 출생한 사람은 10% 미만이며, 1914년에 허허벌판에 설립된 Enugu는 1962년에는 8만 2천의 주민을 가지게 되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문화적 이질성은 아시아인들(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의 주민들), 아랍인 및 레바논 사람들에 의하여 증가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인과 외국인으로서 무국적자(expatriate)들이 있으며 이들의 거의가 인종관계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대부분 감독관이거나 경영자의 직업에 종사하고 아시아인들이 상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은 인종 및 부족간에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경향과 일치한다. Uganda의 Jinja라는 도시는 이점에서 아주 전형적이다.

Accra에서 특히 아프리카 원주민 사이에 이루어지는 직업적인 전문화를 보면, 주로 어부나 농민은 Ga족과 Adargme족이 차지하고 제품공업에서의 준숙련노동자는 남부 Ghana와 Ashanti의 부족들이 차지한다. 그리고 서기, 간부와 행정요원 등 교육받은 노동자는 남부 Ghana 지역 출신자들에 의해 담당된다(Little, 1965:4).

이러한 경제적 활동에 의한 다양화 내지는 이질적 요소의 증대 외에도 현대 아프리카 도시의 특징은 인구학적 측면에서도 나타난다(Ardener 1961). 즉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에 비하여 월등히 많고 여자에 비하여 남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일반적으로 보다 먼 지역에서 도시로 잠정적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일수록 남자가 많으며 이를 집단에서는 남자 이주민은 여성 이주자의 6~7배가 된다(Little, 1973a: Chaps. 1, 6 참조).

이러한 「현대 도시」의 특성은 외적인 요소가 도시에게 안겨다 준 결과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회 전반에 걸쳐 외부요소가 영향을 끼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이들 도시는 해외로부터 오는 상업 및 산업적 요구에 조응하여 발전한 것으로서 그 존재는 국내 또는 지방적 요구보다는 국제 시장 경제에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다(Little, 1974:24).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신생도시를 옛날부터 있어 온 도시와 성격을 달리하게 만든 것이다. 즉 후자인 경우 사회생활은 친족과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영위되는 데에 비하여 오늘날의 산업도시 즉 Accra, Lagos,

Nairobi, Kinshasa, Dar es Salaam, 잠비아의 Copper Belt 등에서의 개인의 생활형태는 이와 다르다. 즉 그것은 친족이나 가족관계가 아니라 노동력과 재화와 용역을 댓가로 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 도시거주자들에게는 공동체적 형태보다 개인적이고 성취지향적인 행위규범이 지배적이 된다.

이러한 도시인 특유의 생활관념은 특히 서구식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서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어디서나 아프리카 토착민과 유럽의 상인과 무역업자 사이에 서기나 통역 등 중간 교량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Sierra Leone의 Freetown의 주세력을 형성하는 Creole인들이다. 즉 노예로 서구세계로 끌려간 흑인의 후에는 영국, Nova Scotia, Jamaica로 부터 되돌려 보내져서 Freetown에 모이게 되었고 이들은 선교사와 교회의 보호하에 기독교도가 됐을 뿐 아니라 교육기회를 부여받았다. 그 결과 Creole인들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되었다. 이들은 상업에 종사하였고 부를 축적하여 자녀들을 영국으로 유학시켰다. 그들은 또한 식민정부의 의회의 멤버를 담당하였고 서구 행정과 교역방식 및 체제에 익숙했던 관계로 행정관리나 교역 중개업자가 되었다. 따라서 이주나 다른 정상적인 사업의 과정에서 이들은 전제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남쪽의 Congo에서부터 서쪽의 Gambia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도시성장을 촉진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Little, 1950:308-19).

서해안에서의 도시의 발전은 교육과 기술을 요하는 직업기회를 증대시켰다. 특히 2차대전으로 말미암아 연합군은 변화, 코코아, 야자기름 및 기타 광물을 포함한 이지역 토산원료들을 더욱 필요로 했고 식민정부의 주도하에 이는 사회변동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황금 해안의 사람들은 노동력과 기업가적 모험심, 그리고 숙련된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홍경에 의하여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이는 인구의 지역이동을 가속화시켰다(Fortes, 1947:164-5).

한편으로 2차대전이 가져온 경제 불외에도 신생독립국가의 출현은 많은 관리와 사업 및 경제의 여러 부문에 높은 직위들이 생겨나서 교육과 기술에 의해 채워지게 되어 아프리카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일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단순노동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불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²⁾

(2) 1948년 이전에 고등교육 기관으로서는 영국의 Durham University에 소속된 Fourah Bay College가 1876년에 Freetown에 성립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1948

교육산업의 확산으로 나이지리아의 서부지역에서는 행정, 의학, 법학 분야의 엘리뜨가 배출되었다. 그러나 1956년까지도 상위직의 2/3는 유럽출신의 무국적자들에 의해 담당되었다. 1955년 이후부터 Nigenia대학이 졸업생을 배출함에 따라 이들 대학졸업자들이 행정, 교육분야 등에 진출하였다. 이들의 진출 및 승진의 속도는 아주 빨라서 1967년 현재 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 무국적자가 150명임에 비하여 나이지리아인은 650명이 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행정관리직책도 늘어나서 1957~63년에 걸쳐 고급관적이 25% 증대하였고 회사의 중역 및 전문기술직급은 300% 증가하였다. Ghana도 이와 비슷해서 독립이전에 전문직 종사자는 57명의 법관(판사·검사·변호사), 45명의 의사와 치과의사 뿐이었다. 1954년에 고위직책에 있는 아프리카인의 비율은 13.8%(1949)에서 38.2%로 늘어났다(Lloyd, 1967:129-50).

나이지리아에서는 나이지리아 국내인의 승진은 급속하였고 특히 대졸자로서 50년대에 관계로 진출한 사람은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였다. 특히 유럽 무국적자들이 떠나가면서 空席이 남겨지고 새로운 직책과 직위가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Ibadan대학의 고위교수의 1/3은 나이지리아 국내대학 출신이며 조교수에서 (£12,000연봉) 정교수 (£30,000연봉)로 승진하는 데는 불과 6년이면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고등교육을 받은 새로운 엘리뜨들이 이렇게 급속한 지위상승을 이룩한 결과 “그들 생애의 20년 안팎에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촌락의 영세한 농민의 입장에서 벗어나 현대적 관청과 대학에서 4자리 숫자의 월급과 고급가구를 향유하면서 도시인의 세련된 삶을 즐기게 된 것이다.”(Lloyd, 1967).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들 신흥 엘리뜨들의 출신배경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2/5는 국민학교도 가보지 못한 영세 농민 및 수공업자인 부모를 가졌으며 2/3~3/4은 어머니가 문맹인 사람이다. 그들의 1/4만이 국민학교 혹은 중학교 교육을 받는 아버지들은 관청의 주사나 국민학교 교사, 교회의

년에 들어서자 Nigeria의 Ibadan과 Accra 근교의 Legon에 대학이 설립되었고 이들은 1960년대에 와서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였다. Uganda에는 1949년에 Makerere대학교가 세워졌고 로데시아(짐바브웨)와 Nyasaland 사람을 위한 대학이 1955년에 설립되었다. Nyasaland(현 Malawi)에는 1964년 까지 대학이 없었고 Zambia에도 1965년에 처음으로 대학이 섰다. Kenya와 Tanzania에는 대학이 1964년에 섰다. 프랑스령에서 대학교육은 더욱 낙후되어서 1957년에 Dakar에 대학이 섰고 Lovanium(Congo Universtion Centre)가 1956년에 정식대학 지위를 부여 받았으며 Ivory Coast에서는 1963에 Abidjan 대학이 승인되었다.

장로 등의 직위를 담당한다. Ibadan 대학생들의 아버지들 중에서 약 40%가 현대적 엘리트이며 1/3이 농민이며 36%의 어머니가 상업에 종사한다는 통계분석이 나왔다(Van den Berghe, 1969:355-78). 나이지리아의 대학생 중 1/3이 전문적 가정배경을 가졌음에 비하여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의 학생은 1/10만이 그러한 출신배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젊은 엘리트들은 서구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은 소위 개화된 집안의 출신이 아니라 문맹자이며 영세농이며 극히 빈약한 교육을 받은 부모들의 자녀인 것이다(Oppong, 1974). 따라서 교육기회의 확산과 증대는 전통적인 엘리트 집단에 대한 "세로운" 엘리트 집단의 양성을 촉진하였으며 이들에게 정치적 및 경제적 권력을 이양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예외없이 도시에 정착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도시인구는 소수의 엘리트와 다수의 농촌출신 이주자인 영세노동자로 나뉘어지게 되는 특성을 만들어 냈다.

IV. 도시이주민의 경제생활

아프리카의 도시들은 그 인구의 상당부분이 농촌으로부터의 이주자이므로 이들이 어느 정도로 지속적이고 안정된 도시주민으로 되는가 하는 문제는 도시생활의 특성을 이해하는 한 단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어느 Hausa족 젊은이의 일대기는 좋은 예를 제공한다. 그는 20살때 Nigeria로부터 Ghana로 가서 집꾼으로 5년, 건축현장에서 돌깨는 인부로 2년, 탄광의 광부로 6년, 그리고 군인으로 7년간 종사한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고향에서 2년 간 농사를 짓다가 그는 다시 Ghana로 가서 2년간 건설현장의 잡역부로 일하고 2년간 관공서의 경비원을 하면서 마침내 Ghana의 수도 Accra로 가게 되었다. 그는 닥치는대로 일을 하다가 삶증이 나면 새 일거리를 찾아 나서곤 했다(Peil, 1972:55-59). 위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도시에서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직업전환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자주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직률이 높고 직장과 직업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열려 있는 직업이 대부분 비숙련 단순 노동적이기 때문이며, 도시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젊은 기간에 서너 군데의 직장을 옮긴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생활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와 현금수익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데로

가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욕구는 끝없이 새로운 직장과 직업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촉진하게 된다(Little, 1974:33).

한편으로 이들이 만약 도시에서 직업을 잃게 되거나 그만둔다고 곧장 농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농촌이 현금경제체제에 더욱 편입됨에 따라 도시이주자는 더욱 산업중심지에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다. 첫째로, 정부, 광산회사, 부족의 당국은 전에는 남자 이주노동자를 경제적 수익성과 노동통제를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게 했으나 점차 부인과 가족도 같이 와서 살림을 하도록 정책을 바꿈으로써 정착의 기반을 마련해 뒀으며, 둘째로, 도시와 농촌간의 현금수익성에 대한 심한 격차는 도시이주자를 다시 농촌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³⁾ 그렇다고 도시에서의 생활이 반드시 농촌에서의 생활보다 낫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도시로 이주해온 노동자들 중에는 농촌에서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그들이 농촌에서 싸게 공급받을 수 있던 모든 필요한 물자에 대해 일일히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Boserup, 1970:170-2).

또한 농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남자들이 도시로 모여든 결과 마침내 실업자의 증가가 야기된다(Gutkind, 1968). 1964년의 통계에 의하면 Lagos의 Federal Territory에는 60만 인구중에 6만 5천명의 남자가 구직광고에 응하고 있었다. 사실 고용자의 숫자도 정확하지 않다.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된 중에는 한달에 며칠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노점이나 집단으로 여려 집역을 하는 사람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의 취업형태는 따라서 다양하다. 광부, 부두노동자, 비교적 숙련된 공장직공과 상업노동자와 같이 전적으로 직장에 관여하는 것과 이주민 임시노동자와 같은 임시직이나 부분고용직도 많이 있다. 도시로 오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문화적 지위가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 이유 즉 돈을 번다는 목적으로 온 경우가 많다(Little, 1974:34). 따라서 이들은 언제든지 쉽게 나면 즉각 직장을 버리고 다른 새로운 직종의 노동판으로 옮겨 간다. Nigeria의 Sapele의 목재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Wober의 연구에 의하면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노동자가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장 “비숙련된 노동자들은 농민으

(3) Zambia에서는 1954년에는 농촌수입의 2.5배였으나 1964년에는 3.5배, 1960년에는 7배였다(Heigler, 1971).

로 남거나 가장 비숙련된 노동자로 일하거나 그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반면에 하급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지식인'과의 차이에 별 신경을 쓰지 않음으로써 자기 직업에 상대적으로 더 만족할 수 있다. 동시에 이들 하급사무원들은 육체노동자만큼 자기의 상관과 잘 지내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무원은 자신이 상관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조건에 놓여 있지 않다는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상관과 자신을 동일시 하는 경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Wober에 의하면 사무원과 노동자가 자신이 고용된 회사에 대하여 갖는 호감은 회사가 주는 의료혜택과 그들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준다는 점이다. 또한 정기적인 급여도 노동자를 감사하게 하고 스스로가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체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준다.

도시에서의 직장생활에 대한 한 사례를 Kampala의 한 담배공장을 통하여 살펴보자. 여기서는 아주 많은 노동자들이 취업 1년 안에 이직을 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Elkan은 그들의 높은 이직율이 그들의 출신배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그 지역의 Ganda족 출신 노동자들이 1년 기간을 못 채우고 떠나는 종업원의 1/8밖에 안되지만, Ganda족의 1/3이 된다. 동시에 Ganda족은 피고용인의 26%밖에 안되지만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의 54% 그리고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53%가 Ganda족이다. 이렇게 Ganda족이 비교적 이직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이 다른 도시 이후자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다는 데 있다. 이 교육적 배경 때문에 Ganda족 종업원들은 처음 2년간의 급료 즉 초봉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 이후로도 급료인상에 있어서 큰 폭의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급료가 인상된다는 기대 속에서 그들은 이직에 대한 유혹을 보다 강하게 억제한다. 이와 함께 회사의 정책도 이들을 계속 머물게 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즉 Ganda족은 자기의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관념이 아주 강한바, 회사는 이들에게 조그마한 토지를 회사나 공장 주변에 임대하거나 매입하도록 주선해 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여 식량의 일부를 충당하였고 이는 그들이 도시에서 소요되는 생계비를 절감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다른 부족 출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풍요한 물질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종업원을 상대로 반반씩 부담함으로써 성립하는 여러가지 혜택제도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부족 출신의 종업원들은 회사에 대하여 Ganda족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 바, 주된 이유는 그들은 식량생산의 수단인 토지를 갖지 않았고 따라서 자기가 받는 임금이 생계비로 소비된다는 사실을 부당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념에 의하면 식량이란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채취하는 것이지 돈으로 구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자신의 노동력의 댓가로 받는 돈을 먹는 데에 쓴다는 것은 곧 돈을 먹는 것으로서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식량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작업능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식량구입에 돈을 지출하는 것을 꺼린 나머지 그들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의 지출까지도 하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무기력상태에 빠지고 작업수행에 필요한 만큼의 노동력을 둘이지 못하게 된다. 영양실조와 무기력증은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과 생산성의 급격한 저하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악화된 건강상태로 말미암아 스스로 직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별다른 이유없이 직장을 떠나는 노동자들도 많다. 그들은 현금을 별 생각으로 Kampala에 왔으나 돈을 저축하기 위하여 조잡한 싸구려 음식을 먹으려 하지는 않는다.

사실 임금 고용에 대하여 서로 다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은 저축에 대한 욕구인 것이다. Kampala에 있는 Ruanda족은 Ganda족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없는 집에 거주하며 기아를 면할만한 수준에서 돈을 저축한다. 이것은 Ruanda족이 보다 좋은 생활이 무엇인지 모른다거나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애초부터 낮아서가 아니라 고향에 가서 잘 살기 위하여 귀중한 돈을 카풀라에서 낭비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주자들 가운데에는 Kampala에 주저앉아서 생애의 대부분을 임금노동자로 지내려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에게 실제로 절박한 것은 저축의 필요성이 아니라 생계를 위하여 벌어들인 돈을 대부분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각박한 경제적 열악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166명의 Ganda족 노동자 가운데에서 104명은 고용주로부터 정기적으로 월급과 다음 월급 중간에 월급을 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동자는 전체 종업원의 44%나 되는바, 이들이 소비지향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것은 지극히 영세한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생계의 수단으로서 관습화되어 버린 것이다(Elkan, 1956).

한편으로 도시 산업체계에서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존재도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여성 취업자는 전체 노동력의 10% 미만

에 머물고 있다. 임금고용에 있어서 여성의 취업비율이 낮은 것은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의 제한 뿐만 아니라 여자가 집안 바깥에서 일을 한다든가, 또는 여자가 돈을 번다는 데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문화적 압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자들은 흔히 여자가 집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임신불능이 된다는식으로 자기 부인의 취업을 혐오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지닌다. 이는 결국 부인이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 즉 고용주의 권위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데 대한 불만의 표현인 것이다. 실제로 남자들은 자기 부인의 취업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고용하려는 어떠한 고용주에 대해서도 심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Elkan, 1956: Little, 1973a). 이러한 태도는 문맹자나 교육수준이 저극히 낮은 보수적인 남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교육받은 많은 남자들도 자기들의 부인이 교사나 간호원 또는 가정으로부터 정규적으로 벗어나야 하는 직업을 갖는 것에 반대한다. 심지어 남편의 동의없이는 직장을 구하기는 어렵고 구해놓는 직장도 남편에 의해서 취소당하는 경우도 많다(Little, 1973a:181).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자들의 반대는 그것이 남편의 권위에 위협적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달아나 버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Madeville의 연구에 의하면 Kampala에서 많은 가족들이 빈곤의 극에 달해 있으면서도 여자들이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남편으로부터 속박되어 있으며, 여자답지 못한 직업까지도 규정되어 있다. 즉 술팔기, 시장바닥에서 장사하는 것, 직업 댄서, 술집종업원 등이다. 음식장사는 그 '지역 출신' 여자로서 담배나 피우고 외설스런 소리로 크게 지껄여 대는 늙은 여자나 할 일로 여겨진다. 그러한 일은 젊잖은 사람이 할 것은 못된다는 것이다. 기혼 여자가 장사(교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데 그 이유는 그것이 주부와 자녀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낯선 사람들과 좋지 못한 패거리들과 접촉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술을 만들어 팔거나 댄서로 일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여자가 할 수 있는 직업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여자들은 남자에 예속되어 여성의 직업을 부정하는 문화체계에 머무름으로써 빈곤을 감수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스스로 탈퇴하여 주위의 멸시와 냉대를 받으면서도 경제적 독립을 추구할 것인지의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물론 Ghana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여성의 취업 특히 상업종사가 전통적으로 허용되어 왔지만 그들 사이에도 여전히 여자는 될 수 있는대로 가정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비교적 산업화가 이루어진 Ghana의 소도시에서도 공장취업의 근로여성은 거의 나이 어린 미혼여성이다. 이는 그들은 결혼생활과 자녀 양육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Peil, 1972:112).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태도는 서구사회와 일반적으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남녀간에도 취업이나 직업관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이 농촌사회에 기반을 둔 전통적 가치관과 태도를 도시생활에 여전히 적용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V. 종족과 계층문제

다른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도 도시와 농촌, 그리고 도시 안에서의 빈부의 차이와 경제적 지위의 다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경제적 지위의 격차는 그러나 상이한 부족 및 인종적 배경과 연결되어 사회적 계층화의 바탕이 되는 것이 아프리카 도시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먼저 도시내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의 격차를 살펴보자. Ghana에서는 최근 지속적인 고용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따라서 잉여노동력이 증대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Ghana의 전체적인 경제사정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노동자들은 작업을 배당받지 못한 채 몇 주일 혹은 몇 달 씩, 심지어는 영원히 일을 쉬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는 기업체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자금의 부족, 외국으로부터의 생산 주문의 지연 및 감소추세,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국내 소비재의 구매능력이 한계에 부딪치게 되는 전반적인 경제사정의 악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Ghana의 북부 및 이웃나라로부터 들어온 농촌출신들은 어떠한 비숙련 노동일이라도 주어지는 대로 택함으로써 장기간의 실업상태를 타개해 나가지만 남부와 도시 출신자들은 교육배경이 필요한 보다 안정되고 장기적인 직업을 추구하므로 오히려 도시출신의 교육적 배경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장기적인 실업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Peil, 1972).

안정된 취업의 어려움은 주택난과 비싼 물가와 더불어 '현대' 소도시의 특성을 말해 준다. 이러한 소도시의 성격은 특히 급격히 성장하는 대도시와

공업도시의 변두리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주택난과 생활비와 일정한 취업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도시로 완전히 이주하기를 보류하고 도시변두리로부터 3~4마일 이내의 농촌에 거주지를 정하고 매일 도시 변두리로 출퇴근을 하면서 제각기 나름대로의 직업에 종사한다. 나머지 가족은 집에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직장을 잃게 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과 임금고용의 결합상태는 아프리카의 도시들이 현대 경제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 이주자들을 충분히 고용할 만큼의 산업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이 국가의 주요 자원들은 한두 개의 중심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Accra의 상승지구에는 Ghana의 도시인구의 25%가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34%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술자, 공정사, 운전사의 34%도 이 지역에 집중해 있다. 그리고 현대경제체계의 한 부문을 차지하는 모든 중소기업체들도 거의 Accra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기업체의 대표나 관리 및 경영인의 52%와 회계인의 58%가 이 지역에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곧 Accra가 행정 소재지일 뿐만 아니라 상공업과 문화 및 사회생활의 가장 주된 중심지임을 의미한다. 자본집중에 있어서도 전체 주식의 1/3과 주요 건물, 그리고 국가전체의 건설사업의 1/2 이상이 모두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이다. (UNECA, 1962:17-18)

경제적 기회의 집중과는 대조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전문적, 관리적, 기술 및 행정직에 있는 사람은 남녀 모두 전체 고용인의 7.7%에 불과하며 Ghana의 제 2의 도시인 Kumasi에서는 6.2%에 불과하다. 이들 고급행정관리, 기업주와 고급경영인, 의사, 변호사, 기타 전문적 종사자들이 도시경제의 주된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대다수의 도시거주민 사이에는 극도의 경제적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행정관리의 경우, 국민개인 소득액이 연 200파운드임에 비하여 700~2,500파운드의 연봉외에 가족의 의료혜택을 누리고 자동차 유지비를 지급받으며, 가구까지 마련되고 정원과 상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갖추어진 주택을 배당받고 퇴직시 연금을 받는 등 엄청난 혜택을 누린다. 다시 말하여 보통사람들과 달리 이들 고급관리들은 냉장고, T.V., 수입식품과 의류 등을 포함하는 현대 도시생활의 요소들을 즐길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져가는 실정이다.

(Oppong 1974). Malawi의 수도인 Blantyre에서도 이와 비슷하여 고급관리는 연 3,000파운드 봉급을 받고 기업경영자는 연 1,500파운드를 받는데 비하여 신발제조공, 괴복공장 종업원, 담배공장의 근로자들은 연 100~150파운드를 받는다. 출판 인쇄업체의 종업원은 연 250파운드, 교사 및 중간급 사무원은 연 300파운드를 받는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Malawi 1967 및 1969). Lagos에서 행한 1959년 가구조사에 의하면 상인, 기업인, 사무원, 숙련노동자, 비숙련노동자의 월수입은 각각 20파운드, 18파운드, 15파운드, 14파운드, 7파운드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인구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전문직 종사자와 행정관리들은 평균 월 472파운드의 수입을 누린다(UNECA, 1962: 42-3).

주택문제에 있어서도 이들 소수의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다수는 셋방살이거나 판자와 녹슨 양철로 만든 무허가 혹은 임시주택에 산다(Marris 1961: 71; UNECA, 1962). 주거공간의 협소성도 극도로 높아서 Accra를 예로 들면 조사대상 가구의 74%가 한 칸의 방을 가졌으며 8%가 한 채의 집에서 각각 한 개의 방에 거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실태는 Nigeria의 하급사무원, 영세 제조업자 및 노동자 층에서도 발견되는데 Lagos에서 표본 추출한 540가구 중 79% 및 Enugu의 389가구 중 78.5%가 모두 단칸방에서 생활한다(Federal Department of Statistics, Nigeria, 1957). 고소득층은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식 가옥에 서구식 가구와 전기와 상수도 시설 및 현대식 가제도구들을 갖추고 산다. 그들의 대부분은 한두 대의 자가용을 소유하고 운전수까지 고용하는 집도 많다. 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담당하는 여러 명의 고용인을 두고 지낸다. 이들의 생활은 식민통치시대의 서구 귀족의 생활양식을 따르고 있어서 청소부, 주방장, 보모를 두고 식사 때는 식탁 옆에 서서 대기하는 보조원까지 있을 정도이다. 식사는 보통 토착음식을 먹지만 서양식 요리도 자주 곁들인다. 커피와 홍차, 그리고 맥주와 위스키 등을 즐기며 양주는 손님에게는 의례껏 제공되는 대접물이다. 이들 ‘상류계급’ 사람들은 옷도 고급품을 즐기는데 정통 서양의 복을 맞춰입고 아프리카 전통의 복도 고급직물에 수를 놓은 호화스러운 것을 사용한다(이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Smythe and Smythe, 1960 및 Lloyd, ed. 1966을 참조).

상류계급 사람들은 식민통치 시대 때 유럽의 관리들이 점유했던 토지와 저택 및 부대시설들을 소유하거나 혹은 도시의 오래된 구역으로부터 몇 마

일 떨어진 교외에 새로운 주거지를 형성하여 이사 나가서 살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각 지역은 대개 이들 거주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성격에 따라 어떤 등급이 매겨지게 되고 위생시설이나 기타 개발계획도 이에 따라 책정되고 진행된다. 예를 들어 Nigeria의 Ibadan시에서 1967년 현재 “구시가지역”의 가족당 연평균 수입이 50파운드에서 100파운드 사이에 머물고 있는 반면 구시가와 교외의 중간에 위치한 “신시가지역”의 가족은 연평균 수익이 200~1,500파운드를 기록한다. 그리고 시의 변두리에 있는 “주택지구”에서는 연평균 350~3,000파운드 소득을 누리는 가족들이 살고 있다(Okediji and Okediji, 1966; Mabogunje, 1967; La Fontaine, 1970 참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제적 기회의 획득정도, 권력에의 접근정도, 거주지역의 배치 등에 의하여 도시주민들은 3~4개의 사회·경제적 계층으로 나누어진다.

최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을 받고 식민통치체제로부터 정치권력을 물려받은 이른바 ‘새로운 엘리트’인 장관급 이상의 정치인물, 판사, 고급판僚 들이며, 여기에 최근 갖은 군부쿠데타는 고급 군장교들을 권력층으로 부상시켰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층에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출계집단(Lineage)도 포함된다. 이 출계집단의 우두머리는 전통적으로 지배자로서의 직함과 권위를 세습해 온 사람들로서 경제적 기반과 종교적 권위로 인하여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주위 촌락들에게로 중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와 비슷하게 이슬람 집단에서는 종교적 지도자도 정치적 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이들 상층계급에 속한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상류계급도 존재한다. 즉 식민통치 이전부터 경제적,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누려왔던 ‘오랜 가문’의 집안 출신들이다. 그들은 물론 식민통치세력과 결탁하였고, 자녀들을 영국이나 프랑스로 유학시켜 주로 법조계에 종사시켜 왔고, 세련된 서구식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아프리카인과 문화적으로 구별되고 엘리트로 분류된다. 중상층의 엘리트로는 전문적 종사의 남녀, 대학교수, 성공적인 기업인, 국회의원과 야당의 지도자급 정치인, 고급관리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밑에는 각급학교 교사, 간호원, 교직자, 독립자영업자, 전통적인 중간계층의 사람들이 있으며, 더 한단계 아래에는 하급 사무원, 장인(匠人), 장사꾼, 미숙련 노동자

들이 하나의 계층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영세상인들, 육체 노동자들, 시장에서 장사하는 여자들, 사환, 및 일반적인 문맹자들이 가장 낮은 계층을 이룬다(Little, 1965).

그러나 아프리카 도시 사회의 계층양상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즉 개인의 교육배경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므로 한 가족이나 형제간에도 각자의 교육정도에 따라 전혀 다른 계층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중요한 정부관리가 된 사람이 있는 동시에 그의 형은 농업노동자이며 동생은 비숙련 노동자이고 누이동생은 국민학교 교사인 경우가 허다하다. 상당수의 공장노동자들이 형제 중 어느 하나가 국내 대학에 다니거나 외국 유학을 하는 데 보조를 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기도 하다(Peil 1972:51-2). 이는 가족 사이에서도 직업이 다양화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대부분 직업과 직위가 다르더라도 친족끼리의 왕래는 변함없다. 그리하여 결혼식이나 여러 명절에는 다양한 사회적 및 경제적 지위의 친족들이 스스럼없이 한데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비록 농촌을 떠나서 오랫동안 도시에 있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가치체계와 생활관념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사람들이 전통적 문화체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Sierra Leone의 Lunsar시에 대한 연구에서 Temne족은 전통적 문화를 도시화 과정에서 거의 완전히 포기했음이 밝혀졌다. 원래 이들은 벼농사를 근간으로 하고 조상숭배, 자연신 숭배, 확대가족형 지향, 씨족체계 지향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탄광도시인 Lunsar로 이주해 온 아래 농업대신 탄광업 및 상업에 종사하고 각자 형편에 맞게 셋집살이를 하면서 위에 열거한 전통적 문화지향은 새로운 도시 및 산업조건에 적응하기 위하여 포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녀의 교육과 개인적인 성취를 중요시하고 씨족공동체 의식보다는 도시 생활에서의 성공적 적응을 높이 평가하고 다른 도시인과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생활방식을 취하려 노력한다(Gamble 1963).

그러나 같은 Lunsar시에서도 Fulbe족은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원래 귀족계급을 형성했던 역사적 배경을 가진 부족으로서 카스트제도를 지닌 엄격한 모슬렘 신자들로서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를 경멸하고 우월감을 갖는다. 그리하여 Lunsar로 이주해 와서도 자신들만의 집단사

회를 형성하고 카스트제도에 의한 사회계층화를 실시한다. 그들은 국민학교가 기독교 선교단체에 의해 운영된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대신에 모슬렘의 비공식적인 서당에서 부족의 역사와 전설, 아랍어 등을 배운다. 공식적 교육배경이 없으므로 그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으며, 따라서 탄광에서도 지극히 조건이 나쁜 노동일 밖에는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광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목축과 같은 전통적인 직업을 택하며 스스로의 우월감을 강화하면서 같은 도시의 다른 직업을 가진 다른 부족들과 구분한다.

한편으로 Zabrama족은 농촌에 식구들을 남겨놓고 독신으로 도시에 온다. 그들은 방 한 개를 빌려서 서너 명 씩 혹은 열 명 씩 공동기거를 하고 도시에서 번 돈을 고향으로 보낸다. 또한 남아프리카의 Xhosa족은 도시에 나와서도 새로운 교육이나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기를 거부하고 동향출신끼리 모여살며 고향과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도시에서 생활한다. 그들은 자신의 전통문화에 가장 집착하고 고향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함으로써 도시에 살고 있어도 전혀 그 도시에 적응하지 않는다(Mayer 1961).

이상의 예에서 보듯이 도시이주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출신 부족배경을 유지하고 있어서 종종 도시내에서 부족배경에 의한 알력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도시내의 직업이나 기타 사회-경제적 기회가 부족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을 때 이러한 긴장은 더 심해진다. 1970년대 초에 발생한 나이지리아의 내전은 상공업 부문에서 절대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던 Hausa족과 황폐된 농촌을 배경으로 모든 경제적 기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온 Ibo족간의 알력이 구체화한 것이다.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서는 상업과 공업부문은 Yoruba족과 Hausa족의 전담부문이며 Ibadan, Lagos 등 주요 도시는 Yoruba족의 토착지역으로서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온 Ibo족 등 타 부족출신은 집을 구하거나 직장을 얻는 등 적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부족배경에 따른 갈등과 함께 몇몇 도시에서는 인종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아프리카에는 토착민 외에 유럽 또는 백인들과 아시아 및 아랍인들이 있다. 유럽인들은 식민통치가 끝난 후 많이 수가 줄어들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체에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로서 일하거나 아프리카인에게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각종 기업경영에 경영이나 기업주로서 존재한

다. 이들과 직접 접촉을 하는 계층은 토착인구 중에서 엘리트계층이며 엘리트계층은 이들과 동일한 생활방식과 관념을 가진, 즉 서구화된 사람들로서 아프리카 내셔널리즘이 정치적 야망을 가진 지도자에 의해 이용되지 않는 한 갈등이 구체화하는 일은 별로 없다.

이에 비하여 동아프리카에는 인도인이 있고 서아프리카에는 데바논인들이 있다. 이들은 해당지역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유럽인들이 동아프리카에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면서 정착하는 데 필수적인 기여를 한 것이 곧 인도로부터 온 이들 노동자들이었다는 점이며, 둘째로 인도인과 아프리카인의 사이의 관계의 특징이 갖는 의미이다. 혼히 백인은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인도인은 이를 계발하고 흑인들은 노동력을 제공한다(Banton, 1967:212)는 식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원래 인도인들은 노예상인으로서 동부해안지역에 상주해 왔으나 유럽식 민정부에 의하여 철도가 부설되면서 이들은 내지로 상업활동을 확대시켜 나갔으며 교역체계와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인도 서북부 지역 출신들로서 소규모 교역과 제조업자였다. 이들은 남부 아프리카에 수입되어온 하급노동자로서의 인도인과는 달리 어느 정도 교육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상업종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950년대에는 Uganda 거주 인도인의 반 수 정도가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인도인들이 도시에 집중되도록 한 것은 그들에게 토지소유권을 허용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다. 지주가 될 수 없으므로 인도사람들은 상품이나 신용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 주거나 여러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데 이익을 재투자하게 되었던 것이다(Morris, 1956:194-211).

더우기 이들 인도인들은 여러 카스트와 힌두교도와 모슬렘 교도로 나뉘어 지지만, 그들 공통의 문화적 관습과 언어 등을 강력히 유지하며 아프리카 사회에 동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도인 남자는 아프리카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배우자를 인도로부터 데려와서 결혼한다. 다시 말하면 인도인들은 계속 아프리카에 적응하기보다는 인도에 문화적으로 귀속되려 한다. 그들은 인도의 고향에 두고 온 가족과 친척과 계속 왕래를 하며 자녀들도 인도로 보내어 교육을 시킨다. 동시에 그들은 도시에서도 특정한 집단 주거지역을 형성함으로써 종족의 특수성을 과시한다(Tiwari 1972).

이러한 그들의 종족성의 과시는 그들의 상대적인 경제적 부유함과 상권의 장악과 더불어 그들보다 월등히 낮은 경제적 지위에 있는 아프리카 토착민들의 질시와 혐오의 대상이 된다. 한 예로서 Uganda의 Jinja시를 보자. 1951년도의 이 소도시의 2만 1천 명의 인구 가운데에서 만 5천 명은 아프리카인, 천 명은 유럽인, 그리고 5천 명은 아시아 특히 인도인이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인은 육체노동자로서 백명의 남자 노동자 가운데에서 45명이 비숙련 노동자였으며 25명이 미숙련 노동자였다. 이에 비하여 인도인들 가운데 30%는 사업가였고 23%는 숙련공이었으며 21%는 사무원이었다. 유럽인들은 식민시대에는 모두 행정관리이거나 기업경영인였으나 이제는 기술자, 엔지니어 등으로 대체되었다(Sofer, 1956:590-612).

이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인이 인도인보다 하위에 종속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바 인도인과 토착민의 상호 혐오심은 강하게 나타난다. 인도인은 대체로 아프리카인에 대하여 우월감을 나타내며 아프리카인은 인도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채어 간다고 증오하기 일쑤이다.

이와 아울러 서아프리카에는 이보다는 작은 숫자이지만 레바논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더러는 그 사회의 상류층에 속하기도 하지만 레바논인들은 원래는 미천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출신이다. 동아프리카의 인도인과 달리 레바논 출신 이민 1세들은 가난에 헤쳐 미국으로 이민길에 오르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미국까지의 배삯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은 뱃머리를 돌려서 Guinea, Sierra Leone 및 기타 서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로 오게 된 것이다(Hanna, 1958).

처음 아프리카에 도착한 그들은 무일푼으로서 길가에 보따리 장사나 소규모 행상에 종사하였다. 여기서 조금 수익을 올려서 그들은 내륙지방으로 들어가서 적물장사를 하였고 아프리카 토착민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 이들은 주로 철도역 부근에 소규모 공동주거집단을 형성하였고 해안지방의 레바논인들과 관계의 망을 통하여 교역활동을 성공적으로 전개시켰다. 즉 항구지역의 레바논인과 내륙으로 들어간 그들의 친척은 외국 물자와 토착 생산물과 원료의 교환을 유럽인이나 아프리카인과의 거래에서 보다 유리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겸소하며 자신들끼리의 경제보조 제도들을 만들고(Winder, 1961-2:309-10)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도—유럽인들이 무시하는—무슨 일이든지 취급한다. 또한 도매시장을 석권하여 물

자를 아프리카인 소매상에게 공급한다.

레바논 이주민의 활동영역은 그러나 단순히 상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Nigeria의 Kano시에서 보면 그들은 양돈업, 신발공장, 비누공장, 텅커나 대형트럭 운송업, 시멘트 블럭 및 타일 공장, 주방기구 제조공장, 땅콩처리 공장 등 산업부분도 장악하고 있다. 이 외에도 Nigeria, Sierra Leone, Guinea 등의 여러 도시에는 레바논 이민들이 가구공업, 피복제조, 금속공예, 운송, 봉제공업, 과자제조, 청량음료 및 식품, 화물취급, 열음제조, 향수제조, 상아제품, 화장품, 담배, 미네랄 워터 공급 등의 방면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상업지구의 토지와 가옥을 장악한다.

이러한 현상을 결국 레바논 이민들이 서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기업부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보여준다. 이는 아프리카 토착민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바 동아프리카에서 인도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아프리카의 상업발달에 기여를 하지만, 그러나 서아프리카에는 이미 유럽인들에 의하여 기업이 개발되어 있고 아프리카 토착민 가운데에도 상당한 전문적 기업인 집단이 있으므로 레바논인들은 중간상인의 역할만 한다. 따라서 아프리카인들의 눈에는 레바논 상인들은 기존의 경제구조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쟁기는 존재들로서 별 호감을 사지 못한다. 레바논인들 역시 결혼이나 종교에 있어서 종족의 정체성에 집착하여 아프리카인들과 사회적, 문화적 동질성을 추구하기를 거부한다.

최근 들어서 국가 차원에서의 기술 및 경제협력 계획에 의하여 중공과 일본의 기술자와 전문 노동자들이 탄자니아, 나이제리아, 콩고 등의 나라에 들어온다. 대부분 이들은 기술자와 의료진까지 포함되어서 일종의 대민봉사를 하며, 경제적 거래는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므로 민중 차원에서의 갈등이나 알력을 없다. 이는 아직도 다른 아시아인들이 장기적으로 거주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의료, 기술, 건설 부문 등에서 우호적인 협조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VII.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아프리카의 도시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사회적 문제점과

전망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를 중심으로 한 사회 내의 서로 다른 부문 사이에 경제적 수익에 있어서 혼격한 차이가 발견된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고급관리나 장교, 교수 및 전문직은 높은 액수의 봉급과 세금 및 복지제도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 비하여 영세농, 임금노동자, 상인, 비숙련노동자들은 현금수입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도 월등히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전자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연간 개인 평균 소득이 ₦200임에 비하여) 연간 10,000 나이지리아 파운드 수입을 누리며, 후자의 사람들은 이 개인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갖는 사람이 허다하다. 최근 임금이 공공부문에서 30%나 인상되었으나 인플레이션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 그리하여 도시와 농촌, 도시 안에서도 계층에 따른 수입의 격차는 심각하다. 곧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프리카 도시인의 구성이다.

둘째로, 도시 내에서 각 부문간에 불균형이 존재한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의 주된 재정원은 농촌으로부터 충당되었다. 이에 비하여 농촌 및 농업부분에의 투자는 극히 미약하였고 1970년에 세워진 4개년 경제개발계획에 의하면 국가예산의 81%가 도시 부문에 집중되었다 (Okedji, 1974). 1975~80년의 경제개발계획은 이러한 편중을 다소 완화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도시와 농촌, 산업과 농업 부문간의 격차는 심하다.

셋째로, 지역간의 불균형이다. 행정과 상공업의 중심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격차는 종종 부족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한 감정적 충돌을 유발시킨다. 많은 지역에서의 지역감정은 부족간의 알력에 의해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넷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로 임금수익 부문에 있어서는 꾸준한 성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업화가 급속히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봉급 및 임금노동자의 주된 수입원은 기업체가 아니라 정부이다. 즉 임금노동자 혹은 봉급생활자의 60%가 여전히 공무원이며 공장이나 회사직원이 아니라 는 점은 아프리카 도시의 산업화의 취약성을 암시한다(Cohen, 1974:49-52).

나이지리아의 경우 Lagos, Kaduna, Kano, Port Harcourt 등 몇몇 도시들이 주된 공업 중심지로 되어 있을 뿐 소규모 공장들은 여러 소도시에 산재한다. 이는 경제적 이유보다 정치적 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

어 방직공장이 당시 국무총리의 고향인 Ogbomoso에 세워지도록 계획되었으나 1966년의 쿠데타 후에는 Ekiti에 세워지도록 결정되었다(Dare, 1972:151).

또한 외국과의 교역을 위한 대규모의 기업은 대개 외국인들과 합작회사 형식을 빌어서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나이지리아 토착민들은 목재소, 건설업 등의 중소기업자가 된다(Cohen, 1974:43-5).

다섯째, 그러나 아프리카 사회의 특징인 서로 다른 부족배경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기회의 불균형적 분배는 여전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급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농촌인구의 도시에로의 유입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미흡한 도시의 경제구조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 표〉

〈표 1〉 나이지리아의 주요도시 인구¹⁾

(단위: 천명)

도시	연도	1 9 6 3	1 9 7 6	1 9 7 9
Lagos ²⁾		665	921	992
Ibadan		627	863	936
Kano		295	407	441
Ilorin		208	287	311
Abeokuta		187	258	279
Port-Harcourt		180	247	268
Kaduna		150	206	229
Maiduguri		140	193	209
Enugu		138	190	207
Benin		108	139	150
Jos		90	124	135
Sokoto		90	124	134
Calabar		76	127	128
Akure		71	98	106

자료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td. 1984.

- 주 : 1) 이러한 통계표는 나이지리아의 도시문제를 이해하는 데 다만 한정적인 의미에서 유용한 뿐이다. 왜냐하면 공식적 집계와 실제 도시 거주 인구 사이에는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즉 도시에 거주하면서도 투표권은 여전히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센서스에서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라고스의 1977년 센서스는 1963년에 비하여 426% 증가율을 보였다. 현재 매년 9~12%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모든 도시를 망라한 평균 성장률은 1980년에는 20%였고 1970~1980년 사이에는 평균 4.7%였다.

〈표 2〉 나이지리아의 도시와 농촌의 인구비율

구분	연도	1 9 6 5 년	1 9 7 0 년	1 9 7 5 년
도 시		20.2%	22.8%	25.5%
농 촌		79.8%	77.2%	74.5%

자료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td. 1984.

〈표 3〉 나이지리아의 취업부문과 취업인구 분포¹⁾ (1975년 현재)

부문	인구분포	전체취업인구에 대한 비율 (%)	취업인구 (단위: 천명)
농업		64	17,860
탄광업		0.4	110
제조업		16.8	4,690
건설·건축업		0.9	250
전기·가스·수도		0.1	30
배달		12.2	3,400
운송 및 통신		0.6	170
용역		5.0	1,400
계		100%	27,910

자료 : *Third National Development Plan 1975~80.*

주 : 1) 실업자수와 실업율은 정확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고용과 피고용의 영역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에서는 계절에 따른 실업 상태가 발생하며 동시에 농번기에는 노동력 부족을 빚는다. 소도시에서의 실업은 사회경제적 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바로서 1981년 6월 현재 정부의 인력국에 의하면 백 3십 4만명이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불완전고용을 계산하지 않고도 도시에서의 실업률은 8~13%로 추산된다(*Quarterly Economic Review of Nigeria*, 1984).

〈표 4〉 Kenya 주요도시 인구 및 인구성장률

도시	연도	인구 수(단위: 천명)					성장률(%)		
		1948	1962	1969	1979	1983	'48~'69	'62~'69	'69~'79
Nairobi		119.0	343.5	509.3	827.8	1,334	7.9	5.8	5.0
Mombasa		84.7	179.5	247.1	341.1	504	5.5	4.7	3.3
Kisumu		10.9	23.5	32.4	152.6	169	5.7	4.7	16.8
Nakuru		17.6	38.2	47.2	92.9	—	5.7	3.3	7.0
Eldoret		8.1	9.6	18.2	50.5	—	6.7	-1.1	10.8
Thika		4.4	13.9	18.4	41.3	—	8.5	4.0	8.4

자료 : *Economic Survey 1981* 및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td. 1984.*

〈표 5〉 케냐 취업 현황

(단위: 천명)

직종	연도	1981년		1982년	
		인구(%)	인구(%)	인구(%)	인구(%)
현대적 직종(도시·농촌포함)					
임금 고용		1,024.3(82.4)		1,038.0(81.5)	
자영업 및 비임금노동		62.1(5.0)		62.7(4.9)	
비공식적 직종 도시지역		157.3(12.6)		172.2(13.5)	

자료 : *Economic Survey 1983.*

〈표 6〉 가봉: 주요 도시의 인구 (단위: 천 명)

연도 도 시	1960	1970	1974	1978	1980
Libreville	45	75	—	250	340
Port-Gentil	31	30	77	85	164
Lambaréne	24	7	23	24	24

자료 : Statistik Des Auslandes: Länderkurzbericht Gabun 1983.

〈표 7〉 가봉: 도시와 농촌 인구의 비율 (단위: 천 명)

연도 지 역	1 9 6 0		1 9 7 0	
	인구(천)	(비율 %)	인구(천)	(비율 %)
도 시	80	(17.8)	160	(32)
농 촌	369	(87.2)	340	(68)

〈표 8〉 세네갈: 주요 도시의 인구 (단위: 천 명)

연도 도 시	1 9 7 0	1 9 7 6	1 9 7 7	1 9 7 9
Dakar	581	790	855	979
Thiès	90	117	120	127
Kaolack	96	107	112	116
Saint-Louis	81	88	93	97
Siginschor	46	73	76	79
Diourbel	40	51	53	55

자료 : Statistik Des Auslandes: Länderkurzbericht: Senegal 1983.

〈표 9〉 세네갈: 도시와 농촌의 인구비율 (1976년 현재)

	인 구(천)	비 율 (%)
도 시	1,650	32.5
소 도 시	735	14.5
농 촌	2,700	53.0

자료 : 상계서

〈표 10〉 아이보리코스트: 주요 도시의 인구 (단위: 천 명)

연도 도 시	1 9 6 5	1 9 7 5	1 9 8 3
Abijan	282	686	1,500
Bouaké	85	175	275
Korhogo	24	45	125
Yamoussoukro	8	37	80
Daloa	35	61	70
Man	30	50	55

자료 : Statistik Des Auslandes: Elfenbeinküste 1984.

〈표 11〉 아이보리코스트 : 도시와 농촌의 인구비율 (단위 : 천 명)

지 역 \ 연 도	1975	1977	1980	1981
도 시	2,146(32%)	2,373(32.5%)	3,106(37.9%)	3,153(38%)
농 촌	4,563(68%)	4,927(67.5%)	5,083(62.1%)	5,145(62%)

자료 : 상계서

〈Bibliography〉

- Ardener, E.
 1961 "Social and Demographic Problems of the Southern Cameron's Plantation Area" in A. Southall, ed., *Social Change in Modern Afric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Balandier, G.
 1955 *Sociologies des Brazzavilles Noires*. Paris: Colin.
- Banton, M.
 1967 *Race Relations*, London: Tavistock.
- Bascom, W.
 1955 'Urbanization among the Yorub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LX(5).
- Boserup, E.
 1970 *Women'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London: Allen and Unwin.
- Breese, G.
 1966 *Urbanization in Newly Developing Countrie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Cohen, R.
 1974 *Labour and Politics in Nigeria*, London: Heineman.
- Dare, L.
 1972 "Military Leadership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Western State of Nigeria" Ph.D. thesis, Carlton University.
- Elkan, W.
 1956 *An African Labour Force*, East African Studies no. 7, East African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 Epstein, A.L.
 1967 "Urbanization and Social Change in Africa," *Current Anthropology* 8. Federal Department of Statistics, Nigeria
 1957 *Urban Consumer Surveys*.
- Fortes, M.
 1947 "Ashanti Survey 1945~1946: an experiment in social research," *Geographical Journal* CX.
- Gamble, D.

- 1963 "The Temme family in a modern town(Lunsar) in Sierra Leone," *Africa* XXXIII(3).
- Gulliver, P.
1958 "Land tenure and social change among the Nyakusa," *East African Studies* 11.
- Gulliver, P.
1960 "Incentives in Labour Migration," *Human Organization* 19.
- Gutkind, P.
1962 "African urban family life," *Cahiers d'Etudes Africaines* 10.
- Gutkind, P.
1965 "African urbanism, mobility and the social net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I(1).
- Gutkind, P.
1968 "The poor in urban Africa" in G.W. Bloomberg and H.J. Schmandt, eds., *Power, Poverty and Urban Policy*, Beverly Hills: Sage.
- Hanna, W.
1958 "The Lebanese in West Africa" *West Africa*, nos. 2142-2143; 26. April, 3. May, 17. May.
- Nanna, W. and L. Judith
1971 *Urban Dynamics in Black Africa*, Chicago: Aldine.
- Heisler, H.
1971 "The African work force in Zambia," *Civilizations* XXI (4).
- La Fontaine, J.
1970 *City Politics: A Study of Leopoldvil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ttle, K.
1950 "The Significance of the West African Creole for Africanist and Afro-American Studies," *African Affairs* 49.
- Little, K.
1965 *West African Urbanization: A Study of Voluntary Associations in Social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ttle, K.
1973 *African Women in Towns: An Aspect of Africa's Social Revol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ttle, K.
1974 *Urbanization as a Social Process*, London: RKP.
- Lloyd, P. (ed.)
1966 *New Elites of Tropical Afric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Lloyd, P.
1967 "The Elite" in P. Lloyd, A. Mabogunje and B. Awe ed., *The City of*

- Ibad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ris, P.
- 1961 *Family and Social Change in an African cit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Mayer, P.
- 1961 *Townsmen or Tribesmen: Conservation and the Process of Urbanization in a South African Ci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Morris, H.
- 1956 "Indians in East Africa: a study in plural socie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70(3).
- Okediji, F.
- 1967 "The formation of new elites of tropical Africa," *Odu: University of Ife Journal of African Studies* 83.
- Okediji, F.
- 1974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aspects of Nigeria's second national development plan 1970~74" in P. Cantrelle, ed., *Population in African Development*, Dolhain, Ordina Editions.
- Okediji, F. and O. Okediji
- 1966 "Marital stability and social structure in an African city," *Nigerian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8(1).
- Oppong, C.
- 1974 *Marriage among a Matrilineal Eli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il, M.
- 1972 *The Ghanaian Factory Worker: Industrial Man in Af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apera, I.
- 1947 *Migrant Labour and Tribal Lif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chwab, W.
- 1965 "Oshogbo-an Urban Community" in Hilda Kuper, ed., *Urbanization and Migration in West Af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mythe, H. and M.
- 1960 *The New Nigerian Elite*, Stanford University Press.
- Sofer, C.
- 1956 "Urban African Social Structure and Working Group Behaviour at Jinja (Uganda)" in *Social Aspects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Africa*, Paris: UNESCO.
- Southall, A. (ed.)
- 1961 *Social Change in Modern Afric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Tiwari, R.

- 1972 "Some aspects of social geography of Nairobi, Kenya," *African Urban Notes* V(2).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UNECA)
1962 *Workshop on Urbanization in Africa*, Addis Ababa.
- United Nations
1964 *United Nations Demographic Yearbook* 1964.
- Van Den Verghe, P.
1969 "Some soci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of Ibadan students," *Nigeri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al Science* II(3).
- Van Velsen, J.
1961 "Labour Migration as Positive Factor in the Continuity of Tonga Tribal Society" in A. Southall, ed., *Social Change in Modern Afric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Winder, R.
1962 "The Lebanese in West Afric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4."
- Wirth, L.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XLIV (8).